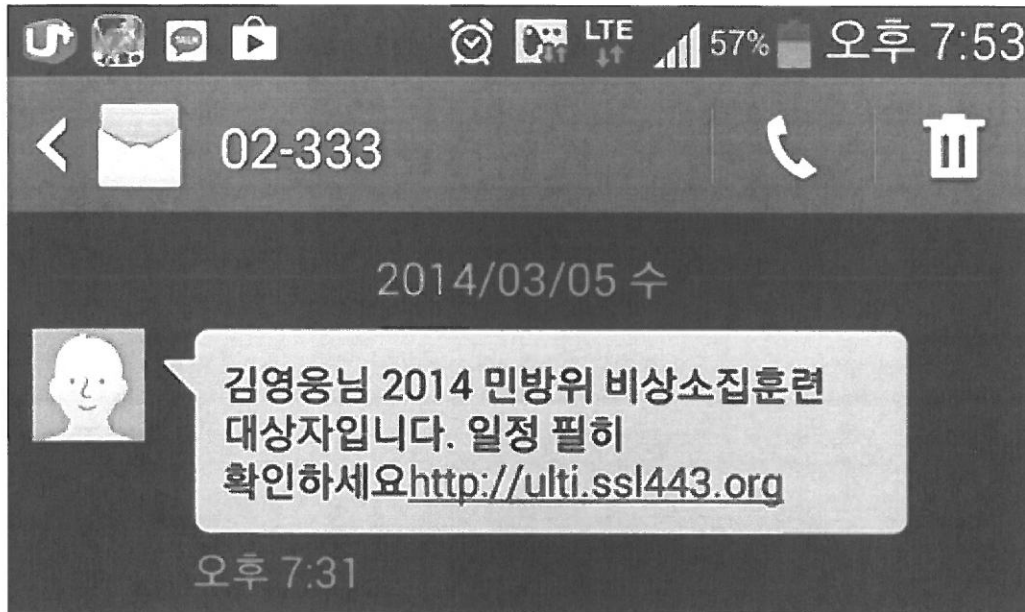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4년 3월 7일 기사입니다.

'XX님 민방위 비상소집' 스미싱 문자 주의보



이름까지 있어 속기 쉬워
“훈련 통지는 직접 전달”

직장인 김모(31·화천군)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31분께 '02-XXX'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김XX님 2014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상자입니다. 일정 필히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와 링크된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민방위 훈련 1년차인 데다 문자메시지에 내 이름이 있어 속을 뻘뻘했다”며 “다행히 인터넷에서 예비군·민방위 훈련 관련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글을 먼저 봐 화를 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예비군 훈련 입소를 가장한 스미싱에 이어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스미싱은 기존 예비군훈련 스미싱과 달리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비군훈련 스미싱 문자메시지에는 '예비군훈련 안내 훈련명, 일정, 집결 장소 확인하기'와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있을 뿐 개인 이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민방위훈련 통지서는 직접 전달이 원칙이고 각 시·군마다 훈련 일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먼저 각 시·군 민방위 담당에게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전국 여러 지역의 예비군들로부터 예비군훈련 입소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자 각 예비군 동대와 관련 기관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강경모기자 kmriver@kwnews.co.kr